

울산, 화학공장 화재 · 폭발사고 급증

울산소방본부, 2011년 상반기 26건 발생 ... 설비 노후화에 외주화로

2011년 들어 울산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화재 및 폭발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방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단지 입주기업의 화재 및 폭발사고 건수는 2007 38건, 2008년 44건, 2009년 31건, 2010년 33건에서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2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 폭발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2007년 1명 사망에 5명 부상, 2008년 1명 사망에 1명 부상, 2009년 9명 부상, 2010년에 1명 사망에 9명이 부상했으나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6월28일 남구 매암동의 설탕 생산기업 삼양사의 설탕원료 저장탱크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다치고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2월27일에는 남구 매암동 식품기업 삼양제넥스 울산공장의 곡물 저장탱크에서 화재가 일어나 9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월8일에는 남구 부곡동 대한유화 울산공장의 PP(Polypropylene) 생산설비에서 보수작업을 하다 잔류가스가 남아있는 탱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2010년 12월20일에는 남구 고사동 SK에너지 중질유분해공장에서 배관 설치작업 중 수소 누출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최근 화재와 폭발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울산지역 2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오래돼 석유화학 장치산업의 설비가 낡았고, 최근에는 증설 및 신규투자로 위험물 저장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재원인은 2007년 이후 발생한 172건 가운데 부주의에 의한 것이 53건, 전기적 요인이 30건, 기계적 요인 22건, 화학적 요인 17건, 기타 50건 등 다양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1962년 조성돼 현재 748사,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부터 조성돼 현재 265사가 각각 입주해 있다.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593개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은 설비가 노후화되고 보수작업 때 잔류가스 폭발, 복잡한 제조공정에 따른 전기 · 기계 · 화학적 화재, 특수가연물의 자연발화 및 유증기 화재 위험이 상존해 있으나 안전시설 재투자가 소홀하고 보수작업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소홀로 화재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12>